

5분 자유발언 (제270회 제1차 본회의 2월 13일)

살기 좋은 반송, 오고 싶은 반송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하다



김성군 의원
(반송1·2동)



원문 보기

반송은 정책이주지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담아 마을공동체 복원을 꾀하고 있고, 제2센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로서의 주거 경쟁력강화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보다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도시의 이미지는 곧 도시의 경쟁력이다. 원주민이 살기 좋은 반송, 오고 싶은 반송이 될 수 있도록 반송 전역에 대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해양사고 예방 및 관리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때



유점자 의원
(중2, 좌2, 송정동)



원문 보기

송정해수욕장은 해양레포츠 인구와 어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공존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어느 누가 요트를 타고 서핑을 즐길 수 있겠나? 어느 누가 사고의 두려움 없이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겠나? 명품해양도시 해운대에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해양 정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

반여플러스스쿨 주민접근성
고려 필요하다



장성철 의원
(반여2·3동, 재송2동)



원문 보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하며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반여플러스스쿨 조성 사업 대상지인 (구)반여초등학교 별관은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져 이용이 쉽지 않다. 주요 이용자들을 고려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높여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길 바란다.

장산 및 수영강 주변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사업을



이상곤 의원
(재송1동)



원문 보기

외래 생태계 교란식물은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식물로서 국내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고 이는 생태계 교란 및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자연 생태계 파괴 및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장산 및 수영강 주변의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사업을 제대로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해운대가 되기를 바란다.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심윤정 의원 외 19명)

해운대구의회는 2월 13일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윤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중 일부분에 그치고, 의회사무기구 조직·운영이 지자체장에 종속돼 있어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며, 국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 및 관계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원문 보기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원영숙 의원 외 19명)

해운대구의회는 2월 17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수원과 국회는 지역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과 영구 저장 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 보기



사진으로 보는 의정



구의원들은 2월 5일 '제38회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에 참석해 구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구의원들은 2월 13일 해운대소방서 센터119안전센터에서 응급처치·심폐소생 교육에 참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2월 17일 현철의 집 해운대센터와 현철생명나눔 협약을 체결했다.